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NYT: 미국인 61%, “식료품비 줄여야 할 상황이다”
- YahooFinance: 5월 미 소비자 신뢰도, 인플레로 감소했다

[미국 금융]
- BloombergL: 연방 재무장관, 국채금리 상승 줄일 방법 쉽지 않아
- Bloomberg: 미·이란 평화 협상 기대감에 뉴욕증시 상승

[이란 전쟁
- WSJ: 이란, 미국의 미사일 기지 공습에 “보복” 경고

[오일]
- CNBC: 브렌트유, 이란의 보복 경고에 3% 상승

[주택]
- YahooFinance: 봄 주택 사고 파는 가격, 서로 맞아…거래 활기
- Reuters: 미 3월 집값 0.1% 소폭 상승…향후 집값 상승은 어려워

[글로벌 경제]
- Bloomberg: 4월 중국산 전기차 글로벌 수출 40% 증가

[오늘의 금융 지표]
- 미 증시 지수, 미국 국채 금리와 주요 환율

[미국 경제]

NYT: 61% of Americans Said They Had to Cut Back on Groceries
미국인 61%, “식료품비 줄여야 할 상황이다”

- 미국인들의 물가 우려가 최고조로 상승했다. CNN 조사 결과, 대다수 국민이 식료품 소비를 줄였고 59%는 문화·오락 지출도 줄였다.
- 특히 국민의 4분의 3 이상(공화당원 55% 포함)은 트럼프의 정책이 생활비 부담을 일으켰다고 답했다.
- 최근 NYT 조사에서도 유권자 절반 가까이가 경제를 '나쁘다 가해 지난 1월보다 11%포인트 상승했으며, 갤럽 기준 경제 신뢰도는 4년 만에 최저다. 현재 전국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50달러를 돌파했다.

기사

YahooFinance: US consumer confidence ebbs in May as inflation worries mount
5월 미 소비자 신뢰도, 인플레로 감소했다

- 5월 소비자신뢰지수가 93.1로 전월(93.8) 대비 소폭 하락했다. 소비 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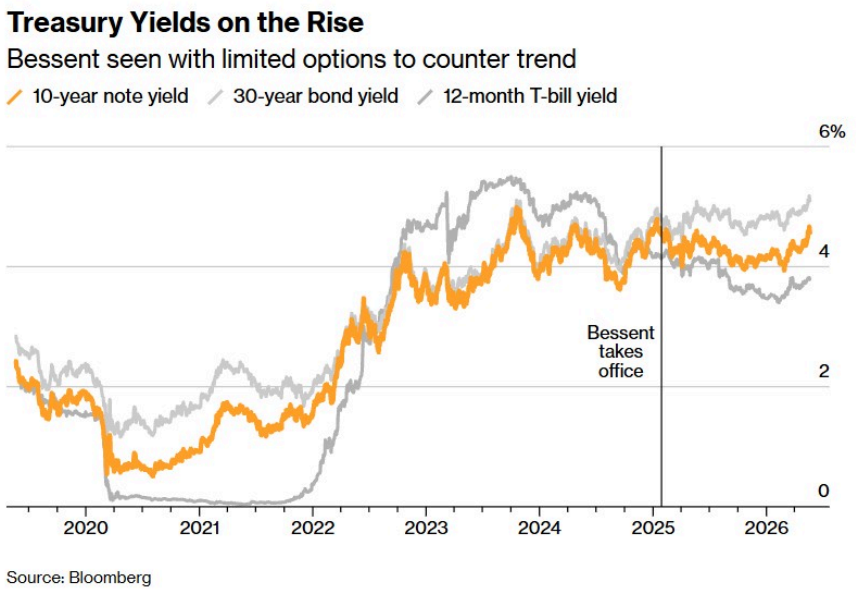
- 하락 원인으로는 고용시장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 우려가 커진 것이 지수 하락의 결정적 이유다.
- 콘퍼런스보드 측은 중동 전쟁발 물가 충격이 고용 호조라는 호재를 완전히 상쇄해 버렸다고 분석했다.

기사

[미국 금융]

Bloomberg: Bessent Has Limited Options to Halt Climb in Treasury Yields
연방 재무장관, 국채금리 상승 줄일 방법 쉽지 않아

- 스콧 베센트 연방 재무장관이 미 국채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금융시장의 시험대에 올랐다. 금리 상승이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를 해결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 최근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고 인플레 우려가 커지면서,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0.5%포인트 이상 폭등했다. 현재 4.49% ~ 4.51% 안팎에서 거래되고 있다.
- 이에 따라 31조 달러 규모의 국채 시장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시장 전문가들은 베센트 장관이 장기 국채 발행을 줄이거나 국채 매입(바이백)을 늘릴 수 있다고 보지만, 이러한 조치가 오히려 투자자들의 불안을 자극할 수 있어 선택의 폭은 좁은 상황이다.



기사

Bloomberg: Stocks Rise Toward Record as Iran Peace Hopes Hold
미·이란 평화 협상 기대감에 뉴욕증시 상승

- 연휴 직후 첫 거래일을 맞은 뉴욕증시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충돌에도 불구하고 미·이란 간 평화 협정 타결 기대감이 반영되며 주식과 채권 가격이 동반 상승했다.
- 특히 반도체주가 강세를 주도하며 S&P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에 근접하고 있다. S&P 500은 0.5% 상승세를 나스닥은 1% 가까이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물가 급등 우려가 완화되면서 미 국채 금리는 하락했고, 시장의 연준의 단기 금리 인상 기대감도 후퇴했다.
- 한편, 국제유가는 중동 정세에 따라 요동치고 있다. 브렌트유는 월요일 7% 이상 폭락한 후 반등해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했다.



기사

[이란 전쟁]

WSJ: Iran Warns of Retaliation After U.S. Strikes
이란, 미국의 미사일 기지 공습에 "보복" 경고

- 미국과 이란의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미군이 이란 남부의 미사일 발사대를 공습하자 이란 혁명수비대가 즉각적인 보복을 경고했다.
- 어제 월요일 발생한 무력 충돌에서 미군은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려던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 2척을 격침했다. 이에 이란이 미군기를 향해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자, 미군이 이란 남부의 미사일 발사 기지들을 공습하며 맞불을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 이란 혁명수비대는 이번 공습을 명백한 휴전 위반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보복을 다짐했다.



기사

[오일]

CNBC: Brent oil price jumps 3% after Iran vows to retaliate for U.S. strikes
브렌트유, 이란의 보복 경고에 3% 상승

- 미국의 이란 남부 공습과 이와 관련 이란의 보복 경고가 나오면서 국제유가가 요동치고 있다.
- 오늘 화요일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선물은 전일 대비 3% 상승한 배럴당 99.10달러를 기록했다.
- 반면, 메모리얼 데이 연휴로 전날 휴장했던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 약 4% 하락한 배럴당 92.86달러에 거래됐다.
- 한편 트럼프는 오늘 월요일 SNS를 통해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파키스탄, 터키, 이집트, 요르단의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아브라함 협정(중동 평화 협정)' 동참을 촉구했다고 밝혀, 향후 중동 상황이 복잡해졌다.

기사

[주택]

YahooFinance: This spring, homebuyers and sellers are finally aligned on price
올봄 주택 사고 파는 가격, 서로 맞아…거래 활기

- 미국 주택 모기지 금리 급등과 경기 둔화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올봄 미국 주택시장의 거래 활기가 회복세를 보인다.
- 최근 주택 매매 계약 체결 건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하며 지난해 4월 대비 3.2% 증가했다. 최종 주택 매매로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건수 역시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하며 시장의 탄력성을 입증했다.
- 이 같은 깜짝 반등의 배경에는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가격'이 서로 맞는 상황 때문이라는 것. 시장의 불확실성이 장기화되자 집을 파는 사람들과 사는 사람들 모두 현실적인 가격 타협점을 찾기 시작하면서 거래 성사율이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기사

Reuters: US single-family home prices edge up in March, FHFA says
미 3월 집값 0.1% 소폭 상승…향후 집값 상승은 어려워

- 미국 연방주택금융국(FHFA)은 지난 3월 미국의 단독주택 가격이 전월 대비 0.1% 소폭 상승했다고 오늘 화요일 발표했다. 지난 2월 집값은 이번에 0.1% 하향 조정됐다.
- 3월 집값은 전년 동기 대비 1.7% 올랐으며, 올해 1분기 가격 역시 2025년 1분기 대비 1.7% 상승해 완만한 오름세를 유지했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이란과의 전쟁으로 인해 모기지 리가 치솟고 있어, 주택 수요가 위축되면서 추가적인 집값 상승은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기사

[글로벌 경제]

Bloomberg: China EV Exports Worldwide Rise 40% Y/y to 278,081 in April
4월 중국산 전기차 글로벌 수출 40% 증가

- 4월 중국산 전기차의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40%가 증가한 27만8천대를 기록했다.
- 지역별로는 아시아가 전년 동월 대비 20% 증가한 110,613대를 수입해 최대 시장 자리를 지켰다. 유럽은 36% 증가한 83,813대, 라틴아메리카·카리브해 지역은 80% 증가한 52,897대로 그 뒤를 이었다. 특히 유럽연합(EU)으로의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41% 늘어난 63,063대를 기록하며 견조한 성장세를 이어갔다.
- 특히 지난 4월 중국의 대(對)브라질 전기차 수출량은 전년 동기 대비 221% 급증한 38,144대를 기록하며 전 세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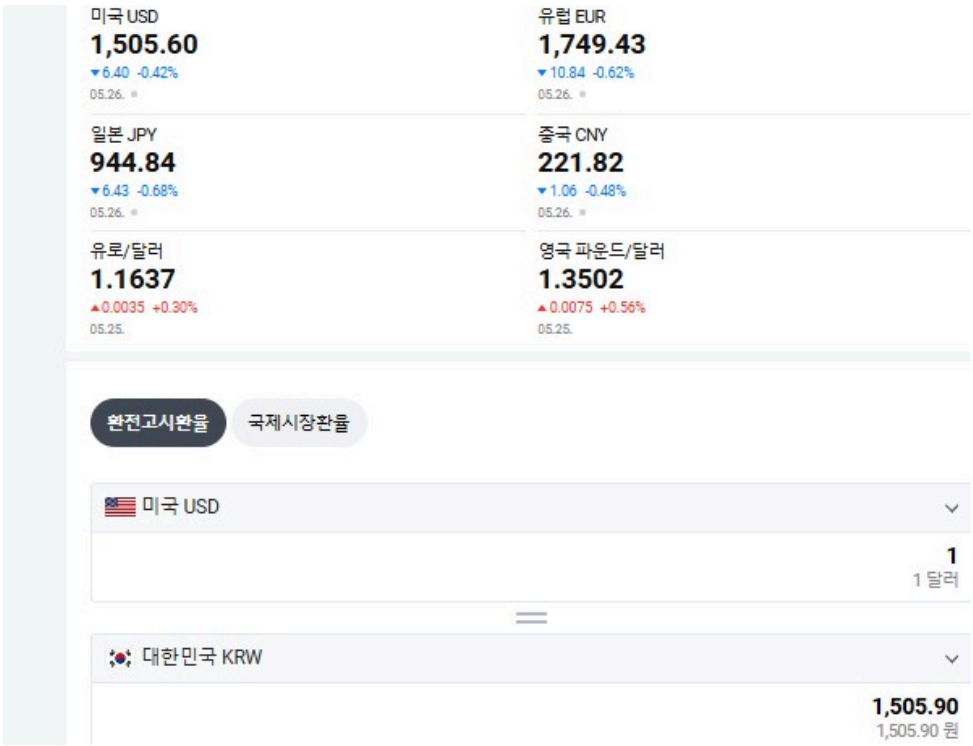
[오늘의 금융 지표: 미 증시 지수, 미 국채, 주요 환율]



US 30	50,457.40	-122.3	-0.24%
US 500	7,515.00	+41.5	+0.56%
Dow Jones	50,461.67	-118.03	-0.23%
S&P 500	7,514.49	+41.02	+0.55%
Nasdaq	26,602.92	+258.95	+0.98%
S&P 500 VIX	16.86	+0.27	+1.63%
Dollar Index	99.165	-0.021	-0.02%

U.S. Treasurys

	COUPON (%)	PRICE CHG	YIELD (%)	YIELD CHG
30-Year Bond	5	28/32	5.028	-0.040
10-Year Note	4.375	4/32	4.509	-0.054
7-Year Note	4.125	3/32	4.349	-0.057
5-Year Note	3.875	2/32	4.212	-0.052
3-Year Note	3.875	1/32	4.130	-0.048
2-Year Note	3.75	1/32	4.083	-0.049
1-Year Bill	0	-1/32	3.823	-0.027
6-Month Bill	0	0/32	3.763	-0.005
3-Month Bill	0	0/32	3.671	-0.006
1-Month Bill	0	0/32	3.670	0.000



KOCHAM | 445 Park Ave | New York, NY 10022 US

Unsubscribe | Constant Contact Data Notice